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문제? 괴로움? 그게 아무것도 마나

## “대립·분열 물리치고 원융·상생의길로”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 신년법어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지난 28일 2021년 신년 법어를 발표하고 “새해에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반목, 대립과 분열을 물리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원융(圓融)과 상생(相生)의 길로 나아가자.” 고 밝혔다.

진제 종정은 신년 법어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위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하자.” 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나 혼자 행복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늘진 곳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행복(相生幸福)을 만들어 가자.” 고 당부했다.

진제 종정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질병은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는 등한시하고 오직 물질과 편의만 추구한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심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생태계의 파괴, 환경오염의 결과” 라며 “이로 인해 세계는 공포와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나고 있다.” 고 말했다.

진제 종정은 “우주법계(宇宙法界)는 인드라마이요, 연기(緣起)로 이루어져 온 세계가 한 집안이요,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돌이 아니라 한 몸” 이라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이므로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고난의 시기를 맞아 자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동체대비의 마음을 실천해 위기를 극복하고 대립과 갈등은 포용과 상생으로 사회를 따스함으로 채워가자.” 고 밝혔다.

원행 총무원장은 또 “새해에는 지혜롭고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자.” 며 “지치고 힘든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희망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발원한다.” 고 덧붙였다.

매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심 초사하고 초조해 하는 바로 그마음이 가장 큰 문제를 가져온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바로 그마음이 문제다. 문제 없는 삶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

우주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 문제가 생기는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업장이 두텁다고 여기며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 업보는 단순한 구조적 요소일 뿐, 그이면의 진실은 당신이 깨닫기를 바라는 무한한 자비에 있다.

업보가 많아서 괴로운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 것이라? 그건 인과응보적 발상이기는 해도, 표면적인 이해일 뿐이다. 더 큰 의미는 따로 있다. 당신은 업보가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걱정일랑 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괴로움이나 문제가 오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에게 이제 비로소 삶을 깨닫고 배우기 위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깊은 모든 문제와 고의 이유다.

이 우주법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곳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다. 업장이 두터운 존재가 아니다. 그런 고민을 부여잡고 두려워하던 마음을 이제 가볍게 내려 놓고, 완전히 안심 해도 좋다.

이 말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디 안심하라.” “당신이 이 삶에서 안심해도 좋다.” 본래, 우리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고(苦)도 없다. 내가 문제라고 문

제 삼기 전까지는. 문제를 통해 삶을 가까이 배워나가라. 고통을 통해 인생을 깨달아나가라. 문제는 문제라는 말을 쓴 자비와 지혜의 신호탄일 뿐이니 내가 가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한번 적어 보라. 골칫거리들과 생각만 해도 괴로운 것들을 적어 보라. 그 목록을 인식하는 내 내면의 해석과 태도와 분별들을 말 그대로 인식전환 해 보는 것이다.



그래픽=shutterstock

사실은 내 바깥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들을 문제로서 ‘인식’ 했을 뿐이다. 바로 그 내면의 ‘인식’ 만을 바꾸면 된다. 외부의 문제는 바꾸려 들지도 말고, 골칫덩이라고 해석하며 밀게 붙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밀게 보면 그것은 내게 와서 미운 경계가 된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목록을 향해 가볍게 소리쳐 보라. 심각해 하지 말고, 그저 가볍게 말이다. ‘왔니? 친구!’ ‘또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왔지?’ ‘네가 누

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만큼 있다가 가고 싶을 때 가도록 해! 내 존재 위를 오고 가는 것을 허락해 줄게’ 우리는 단지 흥미로운 마음으로 그것이 내게 가져다 줄 깨달음과 배움과 교훈들을 농부의 마음으로 수확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그 배움과 깨달음의 학습은 일종의 게임과 같아서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 괴로울 때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가르침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그건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이지, 진짜로 그런 것은 아니다.

고통, 아픔 그게 뭐라고 그 가짜를 받아들이지 못해 안달북달하며 심각하게 괴로워하는가 말이다. 그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박진감 넘치는 장치들일 뿐이며, 게임의 요소들일 뿐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신기루며 꿈이고 진짜처럼 보이게 해주는 생동감 넘치게 기가 막힌 뛰어난 삶의 장치일 뿐이다.

인생은 심각해 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겨날 때, 가만히 마음을 살펴보라. 그것을 ‘문제’ 라고 낙인 찍고 있는 순간을 발견해 보라. 이제부터는 바로 그 순간,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왔을까?’ 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여 보라. 바로 그러한 습관적인 문제 양산에서 받아들임으로의 ‘대 전환의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올 것이다.

이제 그만 ‘안심’ 하고, 분별 없이 모든 것을 진리에 내맡기고 수용해 보라.

-법상스님-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GOD IS LOVE | JOHN 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